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이요, 마귀의 마음은 지옥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져

하늘나라의 정의

하늘나라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 말씀이 영적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이나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당과 하늘나라 극락세계는 영적인 말씀이요? 영이라는 건 마음이요? 그런고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고로 인간 속에 있는 거요? 천국이 인간 속에 있다면 지옥 역시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일 경우에는 천국이 되고 마귀의 마음일 경우에는 지옥이 된다고 해야 그게 정확한 말씀이 되는 거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하늘나라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지 하늘나라는 하나님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요?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과 불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속에 있고 영생이라는 건 사망을 이기는 이길 속에 있는 고로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옵니다. 마귀와 사망권을 승리한 하나님이나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이지 마귀한테 실패하고 마귀한테 지기만 하면 구원이 있을까? 구원이 없는 거요? 그런고로 자신과 투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옵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람의 영이요, 선악과요, 죄 중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할 때에 욕심이 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욕심이 죄가 되는 고로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림이 아니요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리는 고로 나라는 의식=욕심인고로 욕심이 죄니까 나라는 의식이 뭐예요? 나라는 의식이 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죄가 마귀요 마귀가 사망의 영이요, 사망의 영이 곧 영적 무덤이요 영적 무덤이 나라는 주체의식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 중의 죄요, 선악과 중의 선악과라는 것을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해, 안 논해?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나라는 의식의 종노릇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명탕구리요?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야

그런고로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나와 더불어 투쟁을 하고 이제 그대로 시간 시간이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움직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죄가 되는 고로 나라는 것만 제거되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지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과 불경을 가르치는 말씀인데도 이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세계 간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부처



구세주 조희성님

님이었던 석가모니 자신도 "생미륵불이 나오면 나도 생미륵불을 따라 나가야 이제 그대로 영생의 열반에 든다."는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예수 자신도 "이 세상 임금이 내 뒤에 오신다."고 그랬죠? 막상 예수나 석가모니는 정확하게 말을 했던 거요?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고 했으니깐 영생을 주는 임금이요? 영생을 주는 임금이 내 뒤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깐 자기는 영생을 주는 임금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던 거요? 그런고로 예수나 석가

모니는 솔직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을 마귀로 만드는 것은 죄인들이 마귀를 만드는 거지 그 사람 자신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도 그대로 오늘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불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끌고 가죠?

승리제단에 대한 오해

그러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대로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생 하는 하나님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과 불경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 식으로 자기네들 식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모략을 하고 있는데 마귀를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이 말한 걸 가지고 승리제단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고 모함 모략을 하고 있죠?

우리 승리제단으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기록한 제단이에요 이제 그대로 죄인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우리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그대로 죽지 않는 비결의 확신을 정확하게 논하면서 성경과 불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성경과 불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승리제단을 모함 모략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람을 가두고 감금을 한다면 여기 모일 사람들이요?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음이 나오는 얘기요? 지구 땅 위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대낮에 예배 보는 곳이 승리제단 말고 또 있어? 없죠? 여러분들 다 승리제단에다 가둬놓고 한 명도 못 나가게 저기 문을 걸어 잠그면 전 부 부수고 싸움박질이 날까, 안 날까?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문을 전부 부셔, 큰 일 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말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혹시 새 식구들 강제로 잡아다 가둬놓고 그러지 않아? 진짜로 아니? 나 모르겠도 가둬 놓는 거 아니야? 만약에 가둬놓는다면 승리제단에 붙어있을 사람 있어요?

이제 그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는 방법 인고로 성경이나 불경에서는 나를 항상 버리라고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나를 버리는 말씀이 쓰여 있지만 나를 버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지죠? 그런고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므로써 나라는 개체의식을 없애버리고 나라고 하는 의식을 죽여 버리라는 것이지 몸을 죽여 버리라는 거예요? 몸을 죽여 버리라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을 없애버리는 비결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면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져. 이게 정확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의 위대성과 귀중성과 가치를 못 느끼는 건 그건 마귀새끼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하여간 그걸 말이라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이치가 맞는 말이에요? 간혀있을 사람은 누구며 가둬놓을 사람은 누구야? 어떤 때 부자가 가둬놓고 밥을 먹여?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 사람 머리가 명탕구리 머리아. 여러분들 우리 승리제단에서 사람 없애라고 맨날 가르치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제의 잘못을 누구의 잘못으로 여기라고 그랬어?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라고 그랬죠? 형제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죠?

1992년 10월 2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 은잔

(지난호에 이어서)

창세기 43장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이번에는 거기에 있는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동생인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보다 6살 연하의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하고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복될 울음이 왈카나오려고 했습니다

《4장 요셉》

(5) 은잔



베냐민의 부대 속에서 나온 은빛 술잔

넣도록 해라.”

관원은 영문도 모르고 요셉이 분부하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날 동이 틀 무렵에, 가나안에서 온 요셉의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 형제들이 곡식부대를 나귀에 싣고 성문을 빠져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은 다시 관원을 불러들였습니다.

“빨리 그 가나안 사람들의 뒤를 쫓아 가서 붙잡아라. 그리고 왜 너희는 우리가 용서하게 대접을 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예언을 할 때 쓰는 은

으로 된 술잔을 훔쳤느냐고 추궁하고 다시 잡아 오나라!”

관원은 요셉의 명령대로 뒤쫓아가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 총리 각하의 예지중지하는 귀한 술잔을 훔쳤느냐?”

요셉의 형제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여러동절하며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술잔이라니요?”하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국무총리 각하께서 예언하실 때 마다 쓰시는 은으로 된 술잔이야, 너희들

이 떠나자 그 술잔도 없어진 것이 아닌가.”

요셉의 열한 형제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총리 각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까닭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부대 속에 들어 있는 돈을 가나안에서 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물건을 훔쳤겠습니까? 우리들의 집 속에 그 술잔이 있으면 그 짐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그 밖의 우리를 총으로 삼으십시오.”

관원이 말하였습니다.

“아무튼 찾아보자. 술잔을 가지고 있는 놈은 우리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밖의 사람은 죄가 없어.”

모두 자기가 가진 곡식 부대를 풀었습니다. 관원은 제일 나이 많은 형의 부대 서부터 차례로 술잔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뒤져본 막내 동생 베냐민의 부대 속에서 은빛의 술잔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요셉의 형제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옷을 마구 찢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할 수 없이 나귀에 곡식 부대를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열한 형제가 요셉의 저택에 이르자,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위엄에 찬 요셉의 음성이 사방을 찌렁찌렁하게 울리면서 조아리고 있는 열한 형제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무엄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짐을 쳐서 물건을 찾

는 줄을, 너희는 몰랐느냐?”

유다가 마라도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총리 각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모두가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죄의 벌을 우리 모두가 종이 되어 달게 받겠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제가 막내 동생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하고 약속하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애굽 총리의 면전에서 말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지난날에 도단에서 요셉을 구멍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것으로 여기고 그 죄값을 마땅히 총리의 종이 되어 치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유다의 통회에 요셉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될 말!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나의 은잔을 훔친 사람만이 종이 되면 된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

요셉은 일찍이 자기를 결박하여 도단 광야의 구멍이에 던져버렸던 형들의 마음을 한번 떠본 것입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각하!” 유다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젤라